

2000년대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 및 영향분석

런 명*

목 차

- | | |
|-------------------|-----------------------|
| I. 서 언 | IV.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 심화 영향 |
| II. 북한의 대외 경제의존도 | V. 결 언 |
| III.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 | |

〔 논문 요약 〕

이 논문은 2000년대 북한의 대중경제 경제의존과 영향력을 분석한 것으로 그 내용을 몇 가지로 함축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은 현 시기 지역경제 불럭화, 단일화라는 세계경제의 조류와는 별개로, 동북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나라로서, 기본 경제발전전략인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외무역이 경제발전 전반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습유보결(拾遺補缺, 또는 호통유무(互通有無)의 정도인 관계로 대외 경제의존도는 극히 낮은 편인데, 이는 또한 향후 상당기간 동안 북한경제는 세계경제, 특히 동북아 지역경제의 변화에 그 다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게 한다. 하지만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가 가속화되고 한국 이명박 정부가 '강한 한국'을 주창하며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면서, '민을 만만 나라는 그래도 중국밖에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아졌음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전략물자와 원조차원의 심각한 대중국 경제의존 현상을 포착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은 아직까지 대외무역 다각화를 실현하지 못해 무역대상국이 주로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 태국 등 극소수 국가에만 국한되어 있고, 특히 최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약 80~9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과 한국의 대북한 경제정책의 변화는 북한의 대외 경제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아울러 북한의 국내경제 회복과 성장·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최근 북한은 철강, 원유, 식량, 기계, 의약품, 일용품 등 전략물자와 관련하여 심각한 대중국 의존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향후 상당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넷째, 20세기 90년대 중·후반 북한경제는 붕괴의 위기를 겪었고, 외부의 원조를 통해 간신히 파국을 모면할 수 있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북한경제가 미약하나마 회복 성장을 시현해 가고 있지만,

* 길림대학교 동북아연구원 교수

<동북아연구>

최하 수준의 생계유지를 위해 여전히 국제사회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중 중국과 한국의 지원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대 북한 식량 및 원유 원조는 북한의 생명 줄을 쥐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다섯째, 최근 들어 북한이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 비해 더욱 역행하는, 즉, 더욱 강화된 계획경제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북한은 여전히 개혁·개방에 대해 폐쇄주의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이 단시일 내에 본격적인 대내개혁, 대외개방을 실시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등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로 인해 대중국 경제의존 현상은 지속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21세기로 진입하면서, 특히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북 경제관계는 역사상 그 어느 시점과 비교하여도 무역, 투자 및 기타 분야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괄목할만한 발전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 수 년간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주제어: 북한경제, 경제의존도, 북중관계, 대외무역

I. 서 언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현재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나라로서, 기본 경제발전전략인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고 있다.

'자립적 민족경제'에 대한 북한의 해석에 따르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인민생활 수준을 제고시키는데 필요한 중공업 및 경공업 제품들과 농업생산품들을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충당할 수 있도록 경제를 다방면으로 발전시키고, 현대적 기술과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견고한 원료기지를 건설함으로써 모든 부문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종합적인 경제체제를 확립"시키는 것을 의미한다.¹⁾

따라서 북한의 대외경제는 여전히 국내 경제발전을 위한 습유보결(拾遺補缺) 또는 호통유무(互通有無)의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고, 대외경제 규모는 매우 작은 상황이다. 북한은 1990년대 초반 구 소련 해체와 동구권 붕괴를 목격하였고, 또한 1990년대 중반 심각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불가피하게 본격적으로 대외 경제원조를 호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제2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경제제재가 가속화되고 한국 이명박 정부가 '강한 한국'을 주창하며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면서, "믿을 만한 나라는 그래도 중국밖에 없다"라고 간주하고, 중국에 대한 강한 경제협력, 더 정확히 표현하면 중국에 대한 심한 경제의존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 역시 자국의 종합적 국익을 감안하여 북한의 의도에

1)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당면 과업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3권, pp. 79-80.

적극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8년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10년간 대북한 포용정책(햇볕 정책)을 실시하였고, 안보이익>경제이익, 장기이익>당면이익, 잠재이익>현실이익, 전체적 측면에서의 이익>지역적 측면에서의 이익이라는 원칙하에 역사적으로 유례 없는 대북한 경제협력사업이 이시기에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대북한 경제정책의 기본 틀이 바뀌면서 현재 남북관계가, 단지 남북 경제관계의 발전만을 평가할 때,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정치적 영향력, 또는 주도권 행사에 있어서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심화될 경우, 남북교역을 토대로 기타 분야의 경제교류, 나아가 한민족의 최종 숙원인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려는 한국의 목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필자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 현상을 예의 주시하고, 상응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문은 두 번째 부분에서 북한의 대외경제 의존도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본 뒤, 세 번째 부분에서는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 현상을 무역, 전략물자, 원조 등 측면에서 고찰해보았다. 이를 토대로 네 번째 부분에서는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 심화의 긍정적 영향과 제약적 영향을 분석한 뒤 마지막 부분에서 간략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II. 북한의 대외경제 의존도

관련통계에 따르면, 20세기 90년대 이전 북한의 대외무역 의존도는 20%를 상회하고 있다. 하지만 90년대로 진입하면서 북한의 대외무역 의존도는 국내 전반 경제규모의 확산 위축과, 중국을 비롯한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경화 결제 요구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10%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20세기 90년대 북한의 대외무역 상황을 살펴보면, 그 비중이 현격히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절대수치 상으로도 그 위축 정도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한국 KOTRA의 통계에 따르면,²⁾ 1990년 북한의 대외무역 총액(대한민국 무역액은 포함하지 않음. 이하 동일)은 47.20억 달러로, 이는 당시 상황을 감안할 때, 상당히 양호한 실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1991년부터 구 소련 및 동구권 나라들이 모두 자신난보(自身難保)를 맞

2) 지난 수십 년 간 북한은 자국의 대외무역 총액을 비롯한 각종 경제 통계자료를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북한의 무역상대국 통계를 역으로 집계한 '거울통계(mirror statistics)'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북한의 대외무역과 관련하여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외부기관들로는 KOTRA, JETRO, IMF, 중국 세관, 중국 상무부 등이 있다. 각각의 통계가 북한의 대외무역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겠지만, 필자는 북한의 대외무역 실상을 파악하는데 상기 외부기관들의 통계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리가 없다고 인정한다.

이하면서 북한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고, “청산결제에서 경화결제로 전환” 하자는 등의 요구사항을 내세워 북한으로서는 엄청난 경제적 충격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1991년 북한의 대외무역 총액은 27.20억 달러로 급감하였고, 위기의식을 느낀 북한은 1992년부터 “무역 제일주의” 슬로건을 표방함과 더불어, 나름대로의 각종 조치들을 강구하였다. 또한 국내적으로 ‘외화벌이’의 중요성에 대해 적극 강조하였지만, 대외무역 실적을 상승시키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결국, 1998년에 이르러서는 대외무역액이 14.40억 달러에 불과하게 되었고, 북한경제 전반에서 대외무역은 거의 무시해도 무방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1999년부터 북한경제는 국제사회의 지원과 자체 생산가동률의 증가, 대중 무역의 확대 등에 힘입어 점차 회복단계에 진입하였고, 대외무역 또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며 14.80억 달러의 대외무역액을 달성하였다.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북한의 대외무역은 가파른 성장세를 시현하여, 2000년에 19.70억 달러로 전년대비 33.1% 증가, 2001년에는 22.70억 달러로 전년대비 15.2%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2002년부터 또 다시 침체 국면에 진입하였다가,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대외무역액이 30억 달러를 초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북한의 대외무역 상황은, 2006년 7월의 미사일 발사와 10월에 강행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조치 및 개별국 차원의 대북제재, 2009년 11월 30일 화폐개혁, 2010년 한국의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계기인 5.24 남북교역 중단 조치 등으로 인하여 담보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표1 참조).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은 석탄, 수산물, 광산물, 철강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원, 곡물류, 전기기계, 기계류 및 화학제품 등으로 여전히 고부가가치 상품 보다는 원자재 중심의 무역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 특히 북한은 2007년 이래 대외 무역에 있어 유류 및 곡물류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인해 상당히 많은 외화를 지출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북한의 전반 대외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1990 2010년도 북한의 대외무역추이(단위: 백만 달러, %)

연 도	수 출		수 입		합 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990	1,960		2,760		4,720	
1991	1,010	-45.5	1,710	-32.7	2,720	-38.0
1992	1,030	1.3	1,640	-1.0	2,670	1.1
1993	1,020	-6.1	1,620	2.1	2,640	3.6
1994	840	-13.3	1,270	-25.0	2,110	-20.6
1995	740	-14.2	1,316	6.0	2,050	-2.3
1996	730	-1.2	1,250	-5.0	1,980	-3.7
1997	910	24.5	1,272	1.8	2,180	10.1

1998	560	-38.2	883	-30.6	1,440	-33.8
1999	520	-7.9	965	9.3	1,480	2.6
2000	560	7.6	1,407	46.4	1,970	33.3
2001	650	4.9	1,620	15.2	2,270	2.6
2002	735	13.1	1,525	-5.9	2,260	-0.4
2003	777	5.5	1,614	5.9	2,391	5.8
2004	1,020	31.3	1,837	13.8	2,857	19.5
2005	999	-2.1	2,003	9.0	3,001	5.0
2006	947	-5.2	2,049	2.2	2,996	-0.16
2007	920	-2.9	2,020	-0.14	2,940	-9.8
2008	1,130	22.00	2,690	33	3,820	29.9
2009	790	-30.0	1,890	-29.7	2,680	-29.8
2010	1,190	50.6	2,280	20.7	3,470	29.3

출처: KOTRA, TETRO에서 발표한 수치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재정리.

2000년대 북한의 대외무역 의존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발표한 GNP 또는 GDP 수치를 기초자료로 이용해야 마땅하나, 북한은 지난 수십년 간 단 한번도 해당 수치를 발표한 적이 없어서 본문에서는 한국에서 발표한 북한의 “국민소득(Gross National Income)”을 참조하였다. 한국의 관련통계에 따르면, 2000년 북한의 GNI³⁾는 168억 달러였으며, 대외무역 총액은 23.90억 달러였고, 대외무역 의존도는 약 14.22%이다. 여기서 유의하여야 할 것은, GNP<GDP임을 감안할 때 북한의 실질적인 대외무역 의존도는 14.22%에도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동일 계산법으로 2001년도 북한의 대외무역 의존도는 약 17%, 2002년도는 약 17%, 2003년도 약 16%, 2004년도 약 17%, 2005년도 약 16%, 2006년도 약 16%, 2007년도 약 17%, 2008년도 약 22%임을 알 수 있다. 90년대 이전 북한의 대외무역 의존도는 대한민국 무역이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20%를 상회하였지만, 90년대 이후부터는 대한민국 무역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최근 몇 년간 북한 대외무역 총액의 절대치가 지난 90년대 초반 수준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외무역 의존도는 급격히 하락하였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최근 북한의 대외무역 의존도는 상승한 것이 아니라, 상당폭 하락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대외무역 의존도가 70%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대외무역이 북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라 할 수 하겠다.

3) 하지만 한국은행 등에서 발표한 북한의 GNI 수치도 자국의 가격과 환율을 적용한 수치이기 때문에 한국표준으로 계산된 수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점에 대하여 반드시 유념하여야 한다고 인정.

Ⅲ.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

1.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

중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의 제1, 제2 무역대상국으로서, 전술한 것처럼 북한은 대외무역 의존도가 극히 낮은 수준이지만,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주목할 만큼 높은 편이다(표 2 참조). 90년대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약 25~30% 수준에 불과하였지만(1993년에는 34%를 차지),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중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과의 무역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북·중 무역은 급속히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도 수장선고(水漲船高) 하듯이 상승하였다.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2003년부터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4년 48.2%, 2005년 52.6%, 2006년 56.7%, 2007년 67.1%, 2008년 73.0%, 2009년 78.5%로 대단히 높은 수준이고,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의 일방적 지배 또는 독주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⁴⁾

북한의 대중 수출이 급 성장세로 돌아선 것은, 중국 동북3성 및 산둥성, 강소성 경제개발로 인한 연료자원의 수요 증가에 따른 대중 석탄 수출의 증가, 중국의 대북한 광물 자원 개발 투자 증가에 따른 석탄 및 철광석 등의 수출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대중 수입의 증가는 식량을 비롯하여 광물성 연료, 기계류, 화학섬유, 차량 및 부품, 고무 등의 수입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특히 2007년부터 유류 및 곡물류의 국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중국 내 가격도 상승) 원유 및 곡물류의 대중 구입비용이 약 3.08억 달러에 달하였고, 전체 대중 수입액의 22%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⁵⁾ 북한의 무역의존도를 국가별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대중 무역이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러시아는 20세기 50~80년대 북한의 최대 무역상대국이었으며, 1990년 양자 간 무역액이 24.7억 달러에 달했으며, 북한 대외무역 총액의 52.3%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북·러 무역액은 2000년 0.46억 달러로 급감하여 북한 대외무역액의 2.3%에 불과하였고, 러시아에 대한 북한경제의 의존도가 급격히 하락하였다. 최근 들어 북·러 교역이 미미한 성장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7%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4) 이러한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남북교역을 제외한 결과이다. 2007년 남북교역은 전년대비 33% 증가한 17.98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남북교역을 포함한 북한의 국가별 무역비중을 살펴보면, 중국이 44%, 한국이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5) 쌀을 비롯한 곡물류의 대중 수입이 2007년에 크게 증가한 이유는, 2006년에 한국의 대북한 식량차관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007년 8월 북한지역의 수해 피해로 인해 곡물생산량의 감소가 예상되자 식량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완화하기 위해 북한정부가 대외 곡물류 수입을 상당히 늘렸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2〉 1990~2010년 북한의 대중 수출입무역 의존도 (단위: 억달러, %)

연도	북한의 대외무역			북한의 대중 무역		
	총액	수출	수입	총액(%)	수출(%)	수입(%)
1990	47.2	19.6	27.6	-	-	-
1991	27.2	10.1	17.1	-	-	-
1992	26.7	10.3	16.4	6.9(25.8)	1.5(14.5)	5.4(32.9)
1993	26.4	10.2	16.2	9.0(34.0)	2.9(28.4)	6.0(37.0)
1994	21.1	8.4	12.7	6.2(29.4)	1.9(22.6)	4.2(33.0)
1995	20.5	7.4	13.1	5.4(26.3)	0.6(8.1)	4.8(36.6)
1996	19.8	7.3	12.5	5.6(28.2)	0.6(8.2)	4.9(39.2)
1997	21.8	9.1	12.7	6.5(29.8)	1.2(13.2)	5.3(41.7)
1998	14.4	5.6	8.8	4.1(28.4)	3.5(62.5)	0.57(6.4)
1999	14.8	5.2	9.6	3.7(25.0)	0.4(7.6)	3.3(34.4)
2000	19.7	5.6	14.1	4.88(24.8)	0.37(6.6)	4.51(32.0)
2002	22.6	7.35	15.25	7.38(32.6)	2.71(36.9)	4.67(30.6)
2003	23.91	7.77	16.14	10.23(42.8)	3.95(50.8)	6.28(38.9)
2004	28.57	10.20	18.37	13.77(48.2)	5.82(57.0)	7.95(43.3)
2005	30.01	9.99	20.03	15.81(38.9)	4.99(49.9)	10.81(54.0)
2006	29.96	9.47	20.49	17.0(39.1)	4.68(49.4)	12.32(60.1)
2007	29.40	9.20	20.20	19.74(16.1)	5.82(63.2)	13.92(13.0)
2008	38.20	11.30	26.90	27.87(41.1)	7.54(66.7)	20.33(46.0)
2009	26.80	7.90	18.90	23.00(85.2%)	7.30(92.4)	15.70(83.0)
2010	34.70	11.90	22.80	30.60(88.1%)	10.40(87.3)	20.20(88.5)

주석: 1) 본 표 중, 대중 무역의존도(%)와 대중 수출입 무역의존도는 필자 스스로가 중국 세관, 중국 상무부, 한국무역협회 등 통계자료에 의하여 계산한 수치임
 2) 북한 각 연도의 대외무역 총액에는 대 한국 무역이 포함되지 않음
 3) 2010년 북 중 무역의 수치는 2010년 1-11월 기간 수치임

최근 몇 년간 남북교역이 빠르게 증가하여 북·중 무역액에 육박하고 있다. 북한의 대 한국 무역액은 2005년 10.558억 달러로 북한 대외무역총액(40.50억 달러)의 26.0%, 2006년 13.497억 달러로 북한 대외무역총액(43.45억 달러)의 31.1%, 2007년에는 전년대비 33%나 증가한 17.979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물론 최근 한국의 천안함, 연평도 사건으로 인한 5.24 조치로 인하여 남북교역이 위축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전반적인 추세로 보아 향후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감에 따라 남북 교역총액은 더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일본은 한 때 북한의 제2 무역대상국이었고, 1995년 북·일 무역액은 5.9억 달러로, 북한 대외무역 총액의 29%를 차지하여 당해 북한 최대의 무역상대국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1996년부터 북·일 교역액이 다소 감소하기 시작하더니, 1999년에는 3.097억 달러로 하락하였다. 그리고 2005년 북·일 무역액은 1.94억 달러에 불과하여 2004년 대비 23%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최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일본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제제재를 실시함으로써, 북·일 교역액은 당분간 상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본문에서 한 가지 반드시 강조하여야 할 부분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북한의 대태국 무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2002년 북·태 무역은 처음으로 2억 달러를 돌파하던데, 2006년에는 3.7425억 달러를 기록하며 태국은 중국에 이어 북한의 제2의 무역 대상국이 되었다.

북한의 대 태국 주요 수출품목은 귀 금속류, 동, 기계류(전기기기, 음향기기 등), 철강 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고무, 목재, 알루미늄 등의 공업원료와 전기기기, 곡물류⁶⁾ 등이다. 하지만 2007년 북한의 대 태국 수출은 0.36억 달러로 전년대비 78.6% 감소하였고, 수입은 1.92 억 달러로 전년대비 15.4%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무역총액이 큰 폭으로(전년대비 42.3%)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역적자도 1.56억 달러(2006년 0.59억 달러)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태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에 동참하면서, 2006년 북한의 대 태국 수출비중이 가장 높았던 금괴의 수입을 거의 중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금괴의 대 태국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경화부족이 발생하여 북한의 태국으로부터의 수입도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⁷⁾

<표 2>를 토대로 수출 측면에서 북한 교역의 대중 의존도를 살펴보면, 그 변화폭(起伏)이 얼마나 큰 지를 알 수 있는데, 대중 수출의존도가 가장 작은 해인 2000년에는 6.6%에 불과하였지만, 가장 큰 해인 2009년에는 92.4%에 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03년 이후 기본적으로 50%를 상회하고 있고, 2010년에는 87.3%를 차지했다. 한편 북한의 대중 수입의존도를 살펴보면, 높은 수준의 의존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심각한 중국 편향성을 띠고 있다. 결국 최근 북한의 대외무역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 북한의 대중 전략물자의존도

시장경제체제 국가들은 보통 비교우위 이론과 이윤극대화 이론에 기초하여 대외무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북한은 계획경제체제 국가인 관계로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이론에 기

6) 2002년 이후 연평균 3천만 달러에 달했던 태국으로부터의 곡물수입이 2006년에는 7만 달러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7) 2006년 12월 27일, 태국정부는 북한산 금괴의 반입을 인정하였다. 키티와시논드 외무부 대변인은 2006년 10월 유엔의 대북제재가 채택되기 전까지 북한으로부터 금괴를 수입하였고, 유엔이 결의를 채택한 이후에는 북한산 금괴를 수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뉴시스, 2006.12.28). 북한은 2006년 3,560만 달러의 보석 및 귀금속류를 태국에 수출하였는데, 그 중 금이 2,728만 달러, 은이 832만 달러를 각각 차지하였다(KOTRA, 2006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pp. 41-42).

초하여 여결(余缺)을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시장경제체제 국가들의 대외무역기구(또는 기업)은 어느 분야가 이익이 많이 나면 바로 그 분야를 경영하지만, 북한의 대외무역기구는 국내에서 무엇이 부족하면 바로 그것을 수입하고, 수입에 필요한 외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 중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물품들을 수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수출입 상품구조를 살펴 보고 분석하면, 북한경제가 어떤 분야에서 국외에 의존하고 있는 가를 알 수 있는데, 이로부터 또한 북한 국가의 생사존망, 즉 국계민생(國計民生)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전략물자를 중국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의 정도 및 그 변화들을 알 수 있다.

역사적으로 살펴 보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주요 제품들로는 원유, 식량, 화학공업제품들, 종자, 의약품 및 자동차 등, 중국으로 수출한 주요 제품들로는 철강, 목재, 각종 광물제품들, 해산물 등이다. 최근에는 북 중 무역의 상품구조가 다소 변화하여 중국 길림성 세관의 통계에 따르면, 2006년도 길림성의 대 북한 의류 수출이 급속히 성장⁸⁾하여 618만 달러에 도달, 전년 동기 57.7% 성장⁹⁾; 석탄은 1,163만 달러로 전년 동기 49.9% 성장; 철강 587만 달러로, 전년 동기 74.7% 성장; 의약품은 341만 달러로, 전년 동기 36.9% 성장; 원유 188만 달러로, 전년 동기 54.1% 성장; 곡물 및 곡물가루는 1,649만 달러로, 전년 동기 57.7%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현재 길림성의 북한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들은 여전히 1차 산업 제품 위주인데 철광석, 해산물, 원목, 생철, 폐철, 석탄 등이다. 2006년 길림성은 북한으로부터 5,174만 달러의 철광석을 수입하여 전년 동기 10.6% 감소; 생철, 폐철은 1,703만 달러로 전년 동기 53.3% 감소; 석탄은 880만 달러로 전년 동기 13.1% 감소; 철강은 1,131만 달러로 전년 동기 62.1% 감소, 원목은 1,298만 달러로 전년 동기 1.4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2007년 1-5월 길림성의 대북한 수출상품구조를 살펴 보면, 전통적인 상품은 여전히 계속하여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주어 2006년 동기에 비하여 식료품은 34.2%, 화학공업은 50%, 비닐제품은

- 8) 현재 북한 주민들의 구매력 여부, 또는 소비여력 등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한 가지 반드시 주목하여야 할 점은 최근 북한 소비자들이 제품의 질과 브랜드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어 북한 수입 제품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 주민들의 구매력 원천인데, 최근 들어 북한에서 일부 고급 소비자 집단이 대두하고 있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평양의 경우, 1) 중국, 일본, 동남아 등지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동포를 친지로 둔 가정으로, 이들 가정은 평양시 가정 중 약 60~70%를 차지한다. 이러한 가정들은 해외친지들의 도움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외화를 사용하고 있다. 2) 해외업무 관련요원으로 주로 해외와의 비즈니스 또는 외교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들이다. 3) 공적 업무로 장기간 북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다.
- 9)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의 대북수출에서 원자재제품이 증가하긴 하였지만, 완제품이 더욱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북한으로 수출하는 기계전기, 음향설비 및 그 부속품들은 2001년의 5,000만 달러에서 2005년의 1.3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철강수출 또한 4,000만 달러에서 8,0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이런 현상은 북한 경제발전과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완제품 및 철강 등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한다.

28.4%, 석탄은 39.8%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물은 40%, 기계, 전자제품은 7.2%, 자동차 및 부속품은 105%, 식량은 105%, 밀가루는 29.4% 증가한 실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와 중국 세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수십년 간 중국의 대 북한 수출 무역액 중 원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약 70% 정도)함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에 진입하여서는 농수산물이 무에서 유로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한편 완제품의 수출도 급속한 성장을 가져 왔는데, 그 중 기계류와 음향설비 및 부품의 북한에 대한 수출이 2000년의 0.4억 달러에서 2006년의 1.8억 달러, 비금속류 및 제품은 2000년의 0.5억 달러에서 2006년의 1.0억 달러, 철강 및 철강제품의 수출은 2006년에 0.49억 달러에 달하여 비금속류 및 제품의 81.67%를 차지하였다. 광물은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하는 가장 주요한 수입품목인데, 2000년 이래 해마다 증가하여 2006년에는 2.2억 달러(이는 2000년의 22배)에 달하였다. 다음으로 직물, 수산물, 목제품 및 비금속류도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제품인데, 2006년 중국의 이 다섯개 품목의 수입액은 총 수입액의 91%를 차지(표3 참조)¹⁰⁾하였다.

〈표 3〉 2000~2006년도 북·중 수출입 주요품목 변화추이 (단위: 억 달러)

	광 산 물		농 산 물		기계전자- 목제품 수출 (기계전자)	비 금 속 류		직 물 류		
	수출 (원유)	수입 (석탄)	수출	수입 (해산물)		수입 (목제품)	수출	수입	수출	수입
2000	1.2	0.1	-	-	0.4	0.1	0.5	0.1	0.5	-
2001	1.6	0.1	0.1	0.5	0.5	0.1	0.5	0.3	0.5	0.3
2002	1.2	0.2	0.2	1.4	0.5	0.1	0.4	0.3	0.4	0.4
2003	1.8	0.3	0.8	2.1	0.7	0.1	0.4	0.6	0.4	0.6
2004	2.1	1.1	1.5	2.6	0.9	0.2	0.5	1.2	0.5	0.6
2005	2.9	2.1	1.1	0.9	1.3	0.2	0.8	0.9	0.	0.7
2006	3.5	2.2	1.2	0.4	1.8	0.3	1.0	0.6	1.0	0.7

출처: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와 중국 세관에서 발표한 자료들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정리.

10) 현재까지 아쉬운 사실은 북·중 경제관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중국이 발표하는 통계자료 외 구할 수 없어서 구체적인 실태에 대한 분석과 판단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하지만 중국의 통계자료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와 관련한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한다. 첫째,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진 지원성 거래와 민간차원의 상업성 거래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것, 둘째, 통계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집무역'과 밀무역의 규모가 상상하는 것보다 크다는 점, 셋째, 정부차원의 협상을 통해서 결정되는 지원 거래의 조건(교환 조건이나 상환방식 등)을 알 수가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표 4〉 2007~2010년도 북한의 대중 주요 품목별 수출 현황(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	2007	2008	2009*	2010.1-11
1		164(38.5)	213(29.7)	72(n.a.)	221(n.a.)
2		170(66.1)	208(22.1)	212(n.a.)	347(n.a.)
3		45(28.2)	78(73.6)	43(n.a.)	91(n.a.)
4		60(-4.7)	77(28.0)	56(n.a.)	139(n.a.)
5		30(-30.8)	40(33.6)	22(n.a.)	56(n.a.)
총 계		469(24.3)	616(31.3)	405(-34.3)	854(n.a.)

출처: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주 1: 품목은 HS code 2자리수를 기준으로 하였고 우선순위는 2008년을 기준으로 함.

주 2: ()내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 2009.8 11월까지 품목별 통계를 발표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품목별 수출 증가율을 파악하기 곤란

〈표 5〉 2007~2010년도 북한의 대중 주요 품목별 수입 현황(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	2007	2008	2009*	2010.1-11
1	광물성 연료	402(15.7)	586(45.8)	223(n.a.)	425(n.a.)
2	보일러와 기계류	104(25.0)	145(40.1)	99(n.a.)	219(n.a.)
3	전기기기, 장비	69(-29.0)	101(45.3)	71(n.a.)	163(n.a.)
4	플라스틱류	54(92.1)	67(25.4)	44(n.a.)	73(n.a.)
5	차량 및 부속품	52(35.4)	89(46.6)	69(n.a.)	142(n.a.)
총 계		681(13.0)	988(45.1)	506(-48.8)	1022(n.a.)

출처: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주 1: 품목은 HS code 2자리수를 기준으로 하였고 우선순위는 2008년을 기준으로 함.

주 2: ()내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 2009.8 11월까지 품목별 통계를 발표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품목별 수출 증가율을 파악하기 곤란

당연히 중국 길림성의 대북한 무역, 또는 위 통계자료(표4, 표5 참조)로¹¹⁾ 북 중 무역관계 전반을 정확히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북한의 여러 가지 상황 또는 동향들을 파악할 수 있다. 북한의 대중 수출상품 구성에 있어서, 철광석, 생철, 폐철, 석탄, 철강 등의 품목들은 대폭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 국내 수요가 증가하여 상품 공급이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국내 생산이 가동을 회복하여 수요가 증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원이 고갈되어 상품 공급원이 감소 또는 중단 된 것이다.

북한의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구조 중 의류, 석탄, 철강, 의약, 석유 등 전략물자들은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이러한 전략물자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상당히 높음을 설명한다. 또한 북한 내부 생산이 현재 회복 단계에 진입하여

11) 〈표4.5〉의 내용은 임강택 등 “2010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1년 전망”, 한국통일연구원 참조

경제상황이 선순환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¹²⁾

한편, 북한은 국내에서 원유가 생산되지 않아 원유를 장기간 대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북핵 위기 전, 북한은 국내에서 필요한 원유의 대부분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였는데, 1991년의 경우 북한의 총 원유수입량 189만 톤 중에서 110만 톤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였다.¹³⁾

제1차 북핵 위기 발발 후 북·미 간에 핵협정을 체결하면서, 미국은 북한에 매년 50만 톤의 중유를 KEDO로부터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 협정은 엄격히 실행, 준수되지 못했고, 미국의 중유 지원은 반도이폐(半途而廢), 즉 흐지부지하게 되었다. 그 후, 한국이 북한에 일부 원유를 제공하였지만, 북한이 필요로 하는 절대 대부분의 원유는 여전히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70년대에 이미 흑룡강성 대경유전으로부터 북한까지 직접 연결되는 송유관을 건설하였고, 그 때부터 국제가격에 비해 엄청나게 낮은 특별가격으로 원유를 북한에 공급하고 있다. 관련보도에 의하면, 중국이 북한에 제공하는 원유량은 매년 달라 많은 경우는 100만 톤에 근접하고, 적은 경우는 30만 톤에 달한다고 한다. 이것은 북한 총 원유 수입량의 70~80%에 상당하는 것으로,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여야 할 점은, 1999년 이후로는 북한에 원유를 공급하는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라는 것이다. 특히 2002년부터 KEDO의 북한에 대한 중유지원 중단 후, 북한 군부에서 사용하는 연료용 원유의 전부가 중국으로부터 제공되고 있고, 결국 중국의 원유공급이 북한의 사활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었다는 것이다(표4 참조).

〈표 6〉 북한의 대중국 원유(HS2709) 및 쌀(HS1006) 수입 추이

연도	원유 수입(HS2709)				쌀 수입(HS1006)			
	수입액		수량		수입액		수량	
	억달러	증가율	만톤	증가율	억달러	증가율	천톤	증가율
2005	1.98	-41.9	52.3	-1.7	0.12	24.9	47.6	26.9
2006	2.47	24.7	52.4	0.2	0.11	-8.3	38.5	-19.1
2007	2.82	14.2	52.3	-0.2	0.26	136.4	80.7	109.6

출처: 중국세관총서.

3. 북한의 대중 원조의존도

20세기 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은 경제분야에서 외부 원조에 많은 기대를 가지기 시작하였고, 자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로부터 출발하여 북한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밖에

12) 장보인, “최근 조선의 경제발전변화 및 중한의 역할”, 《동북아 논단》, 제5집, 2007년.

13) World Trade Atlas.

없는 중국, 한국, 미국 등 3국이 북한의 최대 지원국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중국으로부터의 지원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 상술한 원유, 초탄, 기계설비 등 전략물자의 원조 외에 북한의 가장 절박한 최우선 순위 대외원조는 식량원조였다. 북한의 매년 최소한 식량수요량은 대략 550만 톤이지만, 매년 생산능력은 최대 430만 톤이고, 그나마 수·재해를 맞을 경우 생산능력은 300만 톤 정도에 불과하여 매년 120~250만 톤의 식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한 분석에 따르면, 북한의 한해 식량생산량이 330만 톤이면 50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하고, 380만 톤이면 10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한다고 하며, 만약 생산 또는 원조를 포함한 식량이 총 430만 톤에 달하면 아사현상은 막을 수 있으나, 400만 명이 영양실조에 직면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식량문제는 여전히 북한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걸림돌이자 난제이고, 또한 이것은 북한의 중장기적인 사회안전 및 국가안정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1995년 이래, 미국은 매년 세계식량계획기구(WFP)를 통해 북한에 200만 톤의 식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엔 식량기구는 1995~2005년 동안 매년 북한에 긴급 식량원조를 실시하여 이미 650만 명이 혜택을 받았고, 이는 북한 인구의 1/3에 해당한다고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이 국제 식량원조를 받은 상황을 살펴보면, 2004년 87.8만 톤, 2005년 108만 톤을 지원받았다. 2005년 중국은 자국 역시 4.9만 톤의 국제 식량원조를 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53.1만 톤의 식량을 지원하였는데, 이는 중국 대외식량지원 총량의 92%에 해당한다. 같은 해 한국이 북한에 제공한 식량지원량은 39.4만 톤, 미국과 일본이 북한에 제공한 식량지원량은 각각 4.8만 톤과 2.8만 톤이었다.

북한에 수재가 발생한 후 중국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 식료품, 의약품 등을 제공하였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언급해야 할 사항은, 여타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북한에 대한 모든 원조는 장부상에 명확히 기입하고 대외에 공표하지만, 중국의 대북한 원조는 상당수가 비밀리에 진행되거나, 민간의 자발적 형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민간 차원의 원조는 통계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양 또한 엄청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상술한 바와 같이, 북한의 매년 식량부족량은 개략 120만 톤 이상이지만, 중국을 제외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지원하는 식량원조량은 부족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은 그 나머지 부족분의 절반을 중국으로부터의 식량수입 또는 지원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것이다. 식량 외에도 북한이 중국에 원조를 요구하는 품목은 돼지고기, 식용류, 각종 식료품, 직물, 원목, 초탄, 기계, 의약품, 기계설비 등이다.

2005년 유엔 식량기구는 북한에 대한 식량원조를 중단했다가, 2006년부터 여러 차례 북한과의 회담을 거쳐서 식량원조를 재개하는데 합의하였다. 하지만 원조 대상을 기존 650만 명에서 190만 명으로 대폭 축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유엔 식량기구가 190만 명에 대한 식량지원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에 대

한 북한의 식량원조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IV.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 심화 영향

1. 대중 경제의존 심화의 긍정적 영향

북한경제의 중국에 대한 의존 심화, 또는 중 북 경제협력의 이러한 새로운 현상은 필연적으로 북한 경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발생하게 되는데, 먼저 그 긍정적인 영향을 분석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북한이 경제시스템 복구 및 경제회복 그리고 대외경제발전전략의 채택에 있어서 '홀로 서서 걷기' 연습, 또는 '제혈'기능 생성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반세기 간, 특히 냉전시기 중 북 경제협력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경제적 지원이 그 본질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 북한은 지난 반 세기 간 중국뿐만이 아니라 구 소련 및 동구권 국가들로부터 약자의 우위논리를 펼치면서 수 많은 경제적 지원(예컨대 식량, 식료품 등 소비재와 원유, 화학비료 등 생산재)을 받았는데, 특히 50-60년대 북한의 주요한 기간산업들, 예를 들면 기계제조업, 동력산업, 철강산업 등은 이들 구 사회주의권 나라들의 기술적, 물질적 및 재정적 도움으로 건설되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20세기 대외경제관계는 구 사회주의 권 나라들의 북한경제에 대한 일방적인 단순 '수혈'로 이루어졌다고 표현하여도 무리가 아니겠다. 당연히 중국 등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북한에 대한 이러한 경제적 지원은 한국 전쟁 후 북한경제의 복구, 사회안정 및 한국과의 체제경쟁을 벌이는 북한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는데, 즉 북한이 '홀로 서서 걷기' 연습을 하게 하기 위하여 많은 협조적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인간이 평생 '외부 수혈'로 살 수 없듯이 북한도 시종일관 외국의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나라경제를 유지, 발전시킬 수 없는 법, 중국은 21세기로 진입하면서 시장경제체제가 자리잡음에 따라 북한에 마냥 '물고기를 잡아 주는 식'의 방법의 한계와 진정한 실질적인 도움은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점을 점차 깨닫게 되면서 북한의 '조혈' 기능을 생성 및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예를 들어 중

북 간 자전거 및 유리업종 등 분야의 협력사업인데, 예전의 경우는 당연 중국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차원에서 북한에 부족한 유리 또는 자전거를 지원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 북 간 경제협력은 눈에 띄게 일방적 경제적 지원의 축소와 대북투자의 확대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즉 중국 중앙정부¹⁴⁾는 자국의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하는

14) 중국의 운가보 총리는 지난 2006년 1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의 회동에서 정부차원에서의 경제교류 강화(政府引導):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양국 경제관계 형성(市場運作): 경제협력에 있어 기업의 역할 강화(企業參與)의 중 북 경제협력의 3대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이 3대 원칙의 심층적 함의는 중 북 경제협력에 예전 전통적인, 일방적인 지원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상호 호혜의 원칙, win-win 원칙하의 공동발전추구의 새로운 시대에 접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경

것을 적극 지지, 유도하는 방법으로, 북한 또한 양국 간 공동경영을 통하여 중국으로부터 자금, 기술 및 원자재 문제를 해결하였을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지향적인 경영방식을 피부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 기업들의 북한에 대한 투자 확대, 특히 양국 간 공동경영 기업들이 증가함에 따라 강화될 예정인데, 이는 결국 북한경제의 '조혈'기능 생성에 반드시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한국과의 무역과 비교하여 비교 우위를 과시하는 중 북 무역활성화는 북한 주민들의 물질문화생활 향상에 필요한 생필품을 만족시키는데 한층 더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60년대이래 시종일관 '주체사상', '주체경제'를 강조하던 북한에 90년대 중반 전 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그야말로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희귀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도시와 농촌을 불문하고, 수도나 지방을 막론(莫論)하고 현 시기 북한 전역에서는 주민들 일상생활에 필요한 식료품, 일용품, 의류 및 가구 등을 대부분 중국산 수입제품으로 대체하고 있는 현실인데, 백화상점 또는 종합시장의 상품들을 둘러 보아도 열의 여덟은 중국산 제품이라고 단정지어도 과언이 아니다.

오죽하면 북한 주민사회에 '현재 우리 생활에는 중국산 제품이 산소와 같은 역할을 하여 단 하루도 없어서는 안 되는', '공급부족현상이 주 특징인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어려웠던 지난 세월을 이겨냈을 수 있었던 근본원인은 중국 산 제품의 수입 덕택'이라는 유행어까지 떠돌겠는가?15) 다시 말하여 20세기 90년대 후반이래, 특히 21세기이래 북한 주민들의 물질문화 생활은 중국과의 무역을 통하여 유지되었다고 평가하여도 무리16)가 아니다. 여기에 한국 일본 등 나라들이 최근 들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원인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령 남 북 간, 북 일 간 무역이 활성화될 여건이 조성되었다 하더라도 중 북 무역수준까지는 미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제협력분야의 탐색 및 경로의 모색을 위하여 색다른 운영양식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 15) 한국은행도 북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공산품의 중국산 비중이 70% 정도인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행, "탈북자를 통한 북한경제 변화상황 조사", 2007.2. 그리고 한국 KIEP의 조사에 의하여서도 중국산 물품들은 북한 시장 거래에서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북한의 시장경제확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조명철 외,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서울:대의경제정책연구원, 2005, p.142
- 16) 중국의 관련 통계에 의하면, 최근 몇 년 간 중국 조선족들의 약 15만 명이 식량, 의류, 일용품 등을 휴대하고 북한을 방문, 또는 친척방문하고 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중국 친지, 친구 방문 수는 매년 약 3~4만 명, 단 중국 요녕성 단동시의 세관을 통하여 북한으로 입국하는 북한 주민들의 소지품의 가치가 매년 약 6,000만원 인민폐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상품들은 주로 소비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유통용으로 사용되는데, 단동세관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을 '왕래가 빈번해 끊이지 않다'(絡繹不絕), '휴대량이 한계에 달한다'(夾帶量超出極限)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또 한가지 유의하여야 할 점은 이러한 보따리 무역의 수출액 및 수출품목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 북한 수출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조, 장만리: "중·조 경제관계의 현황과 전망", 『동북아논담』 2009년 제4기 참조.

<동북아연구>

한국이나 일본 등 OECD 국가들의 제품에 비하여 중국제품은 질적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낮으나, 가격 측면에서는 월등한 우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값싼 제품들이 소비수준이 낮은, 현 북한 절대 대부분 주민들의 수요를 가장 적합하게 만족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현 북한 역내의 중국 산 제품들은 대부분 값 싸고 저질의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하지만 향후 두 나라 경협이 활성화됨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시장 경제 의식이 상승함에 따라 중국 산 제품의 양은 더 증가하고 질은 더 좋아지며 가격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북 중 접경지대의 인프라건설과 추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이 추동한 동북3성의 발전욕구가 북한을 중국경제에 필수적인 경제협력파트너로 만들고 있다. 과거 중국의 중공업 기지였던 동북3성은 개혁-개방 이후 상대적 낙후를 면하지 못했다. 특히 해안을 접한 요녕성과 달리 길림성은 해양으로의 물류 진출 통로가 막혀 있어서 공업화가 매우 뒤떨어진 지역이었다. 길림성은 이 핸디캡을 극복하고자 1990년대 초반에 훈춘 지역을 경제특구로 삼고 두만강 하류인 방천(防川)에 자체적인 항구를 건설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으나, 방천에서 동해로 빠져나가는 15Km에 달하는 두만강 하류를 공유한 북한과 러시아의 비 협조 때문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최근 길림성 정부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성도(省都)인 장춘(長春)을 시발로 하여 길림(吉林), 도문(圖們)으로 연결되는 이른바 창지투(長吉圖) 선도구 사업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은 북한의 나진선봉 항구의 활용을 전제로 한 것이다.

중국정부가 2020년까지 2800억 인민폐를 투자할 계획할 것으로 알려진 이 창지투계획에 대해서 북한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2010년 6월에 이미 중국에 청진항3, 4호 부두의 15년 사용권을 제공하고 이들 부두들을 '도문(圖們, 중국명: 투먼) 부두'로 명명했으며, 중국의 투먼과 북한의 남양, 청진으로 이어지는 170km의 철도 보수에도 합의했다. 그리고 12월에 중국이 북한 라진항의 4~6호 부두를 개발해 50년간 사용하고, 라진과 중국 취안허(圈河) 사이에 고속도로와 철도를 건설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에는 양국간 철도·도로 연결 및 창지투와 라진, 청진을 잇는 경제벨트 구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위화도와 황금평개발, 신의주 특구 논의도 구체화되고, 북한 근로자의 중국 파견 등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이 시도될 가능성이 높다. 창지투 계획, 또는 황금평 등 개발계획 등은 비록 중국의 길림성, 요녕성 등 개별성이 집행하는 프로젝트이지만 이 사업을 위해 엄청난 재원이 동원되며, 이 두 성 인구가 모두 북한 인구를 넘는다는 점에서 북한에게는 자신보다 더 큰 경제력을 가진 단위와 협력하는 초대형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해당 계획에 대한 중국 중앙정부의 관심도 매우 높아 앞으로 이 계획이 북한경제의 재건이나 재구조화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북한의 관광업 발전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관광자원이 상당히 풍부한 나라이다. 굳이 한국과 비교하면 북한에는 금강산, 묘향산, 백두산 등 명산들이 있을 뿐 아니라 옛 고구려 유적지, 지난 반 세기 간 건설한 평양시 광경 등 한국과는 또 다른 특색의 관광지들이 외국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게다가 관광산업은 원래 전통적으로 투자기한이 짧고 이윤 창출율이 높아 어느 나라나 선호하고 중요시하는 산업이지만, 유독 북한만은 반 세기 간 관광사업 자체를 발전시키지 아니한 한 사정과 관련하여 신비로움까지 추가 작용하여, 현재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 주민들의 유혹 또는 궁급증을 많이 사고 있는 실정인데, 최근 들어 중국 경제가 급성장함에 따라 북한 관광을 소원하는 여행객이 기하 급수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들어 북한도 외화 벌이의 한 수단으로 중국에 주요 관광지들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있는데, 여기에 현재 중국의 여행객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북한의 외화수입증가를 위하여 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의 관련 인프라, 교통시설, 서비스업 및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0년부터 중국의 대북 관광 인원제한이 풀림에 따라 중국의 대북관광이 크게 확대되어 예컨대 단동국제여행사가 모집한 북한 관광객 수는 2010년 11월에 3만 명 수준, 2009년 1.4만 명에 비하여 2배 증가한 숫자이다. 일반상품으로 평양관광을 주로 취급하고 개성, 묘향산, 남포, 그리고 접경지인 신의주 관광 상품도 취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나진과 백두산 남쪽의 1박 2일, 2박 3일 코스 외에 회령, 청진, 칠보산, 금강산 등에 대한 단체관광 상품을 개설하고 있다.

다섯째, 북한이 개혁 개방의 필요성 및 절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향후 점진적인 시장경제체제의 전환을 위하여 체제전환국 들 중 가장 바람직한 모델 또는 참조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북한은 1948년 건국이래 80년대 초반까지 한국과의 경제체제를 비롯한 체제경쟁을 진행하면서 당시 북한의 경제사정이 워낙 한국보다 월등히 우위를 차지하였던 사정으로 인하여 시종일관 자국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 및 중공업 우선 경공업 농업 동시 발전 경제발전전략의 정당성 및 합리성에 대하여 의심하여 본적 없었다. 하지만 20세기 80년대로 진입하면서 북한경제는 침체기에 들어서는데, 중국은 개혁-개방의 진 맛을 보고, 게다가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 주도하의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전략이 '한강기적'을 이루면서 북한을 초월하자 한때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교수들을 비롯한 엘리트 계층 또는 일부 고급관료 계층들 중에는 북한도 중국 식 개혁-개방을 본따 일종의 '혁신'을 추구하려는 세력들이 등장하였다. 하지만 북한 지도층은 중국 등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개혁-개방의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개혁-개방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이는 또한 90년대 유례없는 경제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 김정일 정권 출범

〈동북아연구〉

후 북한 지도층은 수 차례의 중국 방문을 통하여 ‘천지개벽’의 중국경제변화가 개혁-개방의 혜택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는 또한 북한지도층과 국민들의 관념 및 이데올로기적 변화를 불러 일으켜 개혁-개방의 사명감과 긴박감을 느끼게 하였다. 북한이 최근 한국, 일본 및 미국의 대북제재 하에서, 대외경제정책의 주요 목표를 중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서도 중국 식 점진적인 개혁-개방모델이 북한에게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여섯째, 북한 주민들이 경직된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넓은 공간에서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물을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20세기 90년대까지만 하여도 참으로 단순하고 순수한 사고방식으로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들은 오직 조선노동당과 김일성 주석의 지시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모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또 그렇게 지내 왔다. 하지만 20세기 70년대 중반까지만 하여도 한국에 비하여 월등히 우월한, 넉넉한 세월을 보내던 북한 주민들이 80년대의 신통치 않은 세월에 이어 90년대 중반 유례 없는 경제위기를 체험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이데올로기 및 사고방식에는 그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가 발생하였다. 그들은 더 이상 조선노동당과 국가를 신뢰할 수 없었으며 모든 것은 자체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투철한, 진정한 의미의 ‘주체’ 의식을 소유하게 되었다. 여기에 북한의 심각한 대중 경제의존 현상은 북한 주민들의 사고방식을 완전 탈바꿈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여도 과언이 아닌데, 북한 주민들은 중국 친지, 친구와의 인적 교류, 중국 제품과의 접촉,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하여 점차 자신들의 경제발전전략 차원의 ‘실패’ 또는 ‘실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동시에 중국 개혁 개방의 성과를 실감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그들은 오랜 수면 상태에서 갑자기 깨어난 듯 그들의 사고방식에는 질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북한 주민들은 현재 예전 자국 경제발전 모델의 불합리성과 개혁-개방의 정당성을 분명 실감하고 있으며, 이는 또한 향후 북한 개혁-개방의 사상적 기반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2. 대중 경제의존 심화의 제약적 영향

이상 본문에서는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 심화, 또는 중 북 경제협력의 북한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살펴 보았다. 하지만 제약적 영향도 만만치 않은데,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북한의 투철한 자주의식과 확고한 독립의식이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지난 1948년 9월 9일 건국 이래, 당시 세계적인 냉전 분위기속에서 구 소련, 중국 및 동구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이들 국가들로

부터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약자의 논리를 강조하면서 전혀 위축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20세기 60년대 초반의 중 소 분쟁 후, 이는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무임승차' 전략을 택하지 아니하고 '그네 뛰기' 전략을 추진하는 현명한 독립자주적인 외교정책을 실시하여 막대한 실익을 챙길 수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비 대칭적 동맹관계로 인한 심각한 대외의존 위기에서도 탈피할 수 있게 되었다. 냉전 해체 후, 설상가상으로 북핵문제까지 겹치면서 북한은 또 한번 생사존망의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으며, 외교술에 능한 북한은 금번에도 주변국들의 갈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균형점을 모색하면서 지국의 실익을 최대한 획득하는 동시에 본국의 투철한 자주주의식과 확고한 독립의식을 전 세계에 과시할 수 있었다. 따라서 중국이 북한에 경제적 지원까지 아끼지 않으며 개혁-개방을 제안하여 받아 드릴 북한이 아니며, 여기서 북한의 경제분야를 포함한 그 어떠한 변화도 결코 중국의 대북정책의 산물이 아니라, 북한 핵심지도층이 국내외 정치, 경제 및 기타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하고 내린 결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북한의 '신성'한 '체제수호', 또는 '체제유지' 사명감이다.

북한은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3대째 정권을 이어 나가는 국가이다. 북한은 중국과는 달리 그 2세, 또는 3세 후계자가 반드시 1세대의 어렵게 잡은 정권을 지켜 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신성'한 사명감을 떠 맡고 있으며, 이는 또는 현 북한 지도층의 태생적인 한계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에 있어서 정권수호, 또는 정권유지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중대한 사안이며 (壓倒一切의至上使命), 이는 또한 북한 지도자로 하여금 해당 정권 유지에 도전하는 그 어떤 상황도 용납할 수 없게 한다. 문제는 바로 여기 있는데, 만일의 경우, 북한의 심각한 대중 경제의존으로 인하여 북한 주민들의 심각한 심리적인 혼란과 정신적인 혼란을 야기시킬 경우, 북한은 가차없이 이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게 한다. 여기서 바로 향후 북한의 경제체제전환과정이 무엇 때문에 중국의 간접적인 영향이 상당히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도는 전진적일 수 밖에 없고 살얼음판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조심조심 내 디딜 수 밖에 없는지의 답이 나오게 된다.

셋째, 중국과 북한의 엄청난 경제사정 상 격차이다.

중국과 북한은 외형 상 뿐만이 아니라 경제사정도 여러모로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2009년 중국의 국민총생산(GDP)은 5조 5천억 달러로서 실질적으로 GDP가 80-90억 달러 수준인 북한에 비해 600배가 넘는 규모를 자랑한다. 2009년 기준으로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4,210달러로서 북한의 10배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개혁-개방초기 중국의 농촌인구는 71%, 1차산업의 비중은 31.2%, 하지만 최근 북한의 농촌인구는 약 30%, 이는 북한의 공업화 정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과 같이 먼저 기본체제 밖의 요소들의 개혁과 농촌개혁부터 추진하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북한 개혁-개방의 성패의 관건은 국유기업의 개혁을 어떻게 진행하는가 하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도 이미 본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국제금융기구와의 접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듯 하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최우선과제이다. 여기서 또한 북한이 본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중국의 경제지원을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여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충분히 필요한 전제조건으로는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국도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 강화 또는 경제지원을 미끼로 북한에 대한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을 '수출'하거나 '이식'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V. 결 론

첫째, 북한경제는 지역경제 블록화, 단일화라는 세계경제의 조류와는 별개로, 동북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고립된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외경제 의존도가 매우 낮고 대외무역이 국내경제 발전을 위한 습유보결 또는 호통유무의 역할만을 담당하는 실정인 바, 향후 상당기간 동안 북한경제는 세계경제, 특히 동북아 지역경제의 변화에 그 다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북한은 아직까지 대외무역의 다각화를 실현하지 못해 무역대상국이 주로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 태국 등 극소수 국가에만 국한되어 있고, 특히 최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약 80~9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과 한국의 대북한 경제정책의 변화는 북한의 대외 경제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아울러 북한의 국내경제 회복과 성장·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최근 북한은 철강, 초탄, 원유, 식량, 기계, 의약품, 일용품 등 전략물자와 관련하여 심각한 대중국 의존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향후 상당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넷째, 20세기 90년대 중·후반 북한경제는 붕괴의 위기를 겪었고, 외부의 원조를 통해 간신히 파국을 모면할 수 있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북한경제가 미약하나마 회복 성장을 시현해 가고 있지만, 최하 수준의 생계유지를 위해 여전히 국제사회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중 중국과 한국의 지원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대북한 식량 및 원유 원조는 북한의 생명 줄을 쥐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다섯째, 최근 들어 북한이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 비해 더욱 역행하는, 즉, 더욱 강화된 계획경제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북한은 여전히 개혁-개방에 대해 폐쇄주의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이 단시일 내에 본격적인 대내개혁, 대외개방을 실시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등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로 인해 대중국 경제의존 현상은 지속·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21세기로 진입하면서, 특히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북 경제관계는 역사상 그 어느 시점과 비교하여도 무역, 투자 및 기타 분야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괄목할만한 발전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 수 년간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중·북 간 이러한 과거 중국의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위주의 경제관계에서 현재 평등·호혜 위주의 경제관계, 특히 현 시기 북한 경제의 중국에 대한 심각한 일방적 일변도 현상은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등 여러 분야에 일정한 긍정적 또는 제약적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지난 10여 년에 이어 향후 한층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전망함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북중정치와 경제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이 향후 북한경제의 향방 또는 북한의 시장지향적인 경제체제로의 전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판단 또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북한을 비롯한 그 어떤 나라도 그 나라의 경제발전전략 또는 경제발전체제는 본국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그 나라 실정에 맞게 채택 또는 전환하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볼 때 북한의 최우선 과제는 김정은 후계구도의 원만한 구축, 북미 관계개선을 통한 안전보장시스템 구축 등이며 그 전에 시장지향적인 경제체제로의 완전 전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김주영, 「중국의 동북3성 재건과 우리의 진출방향」, 한국수출입은행, 2004.
- 임명, 「중국 동북3성 진흥 및 중·한 경제협력의 새로운 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 임명, 「전환경제체제에 관한 몇 가지 이론적 명제연구 - 최근 북한 경제정책 변화와 관련하여」, 동국대학교: 북한학 연구, 2005.
- 여초·장만리, 「중·북 경제관계현황 및 전망」, 중국 동북아논단, 2009.
- 장보인, 「최근 조선의 경제발전변화 및 중·한의 역할」, 중국 동북아논단, 2007.
- 조명철 외,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 최수영,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통일연구원, 2007.
- 한국은행, 「탈북자를 통한 북한경제 변화상황 조사」, 2007.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중국경제연보」.
-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 「중국해관총서 통계사」.
- KOTRA,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 KOTRA, 「북한의 외자유치 현황과 전망」, 2006.
- 배종렬, 「북·중 경제관계의 특성과 변화 전망」, 〈수은북한경제〉, 2006년 겨울호.

〈동북아연구〉

- 양문수.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문제 소고”. 〈북한경제논총〉, 2006.
- 임강택. “동북아 국제협력과 북한의 경제발전”.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통일연구원, 2005.
- 임금숙. “중국기업의 대북한 투자에 관한 연구”. 〈통일정책연구〉. 14권 1호.
- 정의준. “최근 중국의 대북투자 동향 분석”. 〈산은조사월보〉. 2007년 3월호.
- KOTRA. “최근 북·중관계 조망-경제적 관점에서 본 중국의 대북위협론 해부”. KOTRA, 2006.
- KOTRA. “북한의 외자유치 현황과 전망”. KOTRA, 2006.
- 동아일보.
- 문화일보.
- 신화통신.
- 연변일보.
- 연합뉴스.
- 요녕조선문보.
- 조선신보.
- 조선일보.
- 조선중앙통신.
-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 중국상무연감.
- 文匯報.

《Abstract》

A Study on Basic Economic Dependence of North Korea in the First Decade of the 2000s and Its Effects

Ren, Ming

This study analysed the dependence of the basic economy in North Korea in the first decade of the 2000s and the effects of this dependence. The results had a few implications.

First, North Korea has adhered to a planned economic system of socialism only in the northeast area regardless of trends in the world economy, such as the formation of blocks and unification, and has firmly adhered to an independent national economy building policy. Therefore, as the weight and role external trade occupies in economic development was supplementary, the North's dependence on external economic situations is extremely low. This indicates that North Korea's economy, in particular the northeast economy, will not be greatly affected by the external world economy.

However, since the second nuclear test in North Korea, American economic restrictions on North Korea have increased. Also as the Lee Government of South Korea has stopped support for North Korea, arguing against a nuclear armed North Korea, its dependence on China has increased. This is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North Korea can depend on China. In particular, the North's dependence on China for strategic goods and support is acute.

Second, North Korea has not realized the formation of multi-faceted external trade. It has had trade only with China, South Korea, Japan, Russia, and Thailand. In particular, the North's trade dependence on China and South Korea amounts to between 80 and 90% of its external trade. Because of this, it is anticipated that changes in economic policy towards North Korea by China and South Korea will affect its external economic activities and,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recovery,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internal economy of North Korea.

Third, North Korea has depended heavily on China for strategic goods such as steel, crude oil, food, machinery, medical supplies, and daily necessities. This dependence is expected to continue for the foreseeable future.

〈동북아연구〉

Fourth, North Korea risked a collapsing economy in the mid and late 1990s and narrowly avoided collapse through external support. In the 21st century, it has realized its recovery, but it is still dependant on support from international society in order to maintain minimum sustainability. For this, support from South Korea and China is absolutely necessary. In particular, it can be said that China's support for North Korea in food and crude oil decides the life of North Korea.

Fifth, in considering that North Korea has been pursuing more reinforced planned economic measures, which are opposite the '7.1 Economic Control Measures' published in 2002, it seems that North Korea is still adhering to a closed policy against innovation and opening. In conclusion, it is difficult for North Korea to execute the internal innovation or external opening necessary to appear as a member of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refore, its economic dependence will be maintained or intensified.

Sixth, in the 21st century, in particular as the Lee Government launched, economic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have developed significantly in quality and quantity, and this trend will continue.

Key Words: North Korea, Economic dependency,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External trade

투고일 : 2011.10.30 / 심사일 : 2011.11.25 / 심사완료일 : 2011.12.25